

재생이

 5월호
2022년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도시재생숲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42. 1166 ~ 7 E-mail. gscur@daum.net

재생 알리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조)

●위치



도시재생小考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운 주민의 역할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 눈높이에 익숙한 생활환경과 풍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드문 지방 도시에서 우리의 시각적 체험은 지상에서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 맞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경험은 쉽지 않습니다.

요사이 드론과 같은 기구를 통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경험에 그 감동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흥동 말랭이 마을 서쪽 월명산 위에 약 40m 높이의 전망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전망대가 완공되면 군산시 전체는 물론 원도심과 내항, 해신동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풍경들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모습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원도심과 해신동 지역은 전망대에서 가장 가깝게 보게 될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물 지붕 위, 집 뒤쪽의 공간들, 관리하지 않았던 공간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마을에서 그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공간을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것, 단순히 보이지만 어려운 일, 바로 그런 일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지사진

도시재생 숲이 조성된 지 3년, 대왕참나무 등 다양한 수종과 시민이 헌수한 적미배롱과 황금곰솔이 멋진 풍채로 숲을 가득 채워가고 있다. 계절마다 꽃길을 열어주는 꽃무릇, 노란줄 비비추 등 자생화들의 개화기에 맞춰 숲을 산책하는 일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연주회 등 문화행사도 꾸준히 열리고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도시재생숲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20년에 조성되었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2. 04. 25~ 05. 19.



2022. 04. 25. 월요일

소룡동 주민협의체 회의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4. 28. 목요일

해신동 주민협의체 4월 정례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4. 29. 금요일

신영시장상인회 월례회의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2022. 05. 02. 월요일

마을기업 스마트스토어 제작 전 사전 간담회
폐보선창협동조합&완주오성영농조합법인



2022. 05. 02. 월요일

해신동 도시재생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5. 03. 화요일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HUG컨설팅
도시재생과



2022. 05. 16. 월요일

폐보선창 번영회 주민회의
폐보스토리1899 1층



2022. 05. 17. 화요일

경암동 주민협의체 총회 준비회의
경암동 주민센터



2022. 05. 17. 화요일

해신동 활성화 계획 변경 국토부 도심재생과 방문
도시재생과



2022. 05. 18. 수요일

'22 상반기 전라북도 마을기업 네트워킹데이
폐보선창협동조합



2022. 05. 18. 수요일

우체통거리 주민회의
우체통거리 홍보관



2022. 05. 19. 목요일

삼학시장 주민공모사업 목표주점 관련 업무회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경암동

경암동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공사
주민설명회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기은 팀장



군산시는 5월 13일 경암동 주민센터에서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임완빈)과 박현자 경암동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그간의 사업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알렸다.

생활SOC 복합시설 설계공모당선안에 대한 브리핑 후 주민들의 질의와 설계 수정 제안 등이 이어졌으며, 관계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초로 학교, 주민센터, 주민과 소통하며 향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설계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암동은 2021년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현청사 부지와 구암초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주민편의시설과 학생시설, 경암동 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 선양동

선양동 새뜰마을사업 주민설명회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기은 팀장



군산시는 5월 12일 선양동 선명경로당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설명에 앞서 국가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선정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오신 주민 소개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오고 갔다.

이날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그간 불편했던 마을의 상황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협의체를 주민 모두가 응원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합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후 마스터플랜 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우게 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주민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해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나눌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뉴딜 소룡동

2022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자 선정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소영 팀장

2022년 소룡동 1구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실현 가능성, 주민 주도적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마을의 생활권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 및 상인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팀과 돌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기술의 기본 자격과정 교육을 지원하는 팀 총 2팀이 선정되었다.

2022년 하반기 주민공모사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소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사업명	단체명 (사업시행자)	비고
소리마을 축제 만들기	꿈동(박*현)	선정
드론교육	드론(조*기)	선정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동네 풍물패 만들기 심화반 종강식을 마치며

수강생 최미경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의 설렘처럼 저는 월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풍물패 만들기 장구 수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10년 가까이 아줌마로 살아가던 무료

한 일상에 재미난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거기에 흥을 돋우는 장구와 함께여서 그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또 풍물계의 일인자 동남풍 대표이신 조상훈 선생님

께 배움을 받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장구에 대한 설명, 가락에 대한 이해 등 이론부터 실체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나씩 배워가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며 흥이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명나게 두드리면서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간 듯 기분이 좋아졌고 장구를 메고 흥겹게 한바탕 놀고 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흥이 분출되며 훨훨 날아가는 듯한 느낌. 말 그대로 힐링,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우리 가락에 애정을 갖게 되니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정겨운 흥을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재미있는 선물을 누구나 매일 받을 수 있는 곳, 군산 우체통거리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신상철 부회장

예쁘고 독창적인 표정의 캐릭터들이 줄지어 서서 시민들을 반기는 곳. 깨끗한 거리를 걸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곳. 새로 문을 여는 점포에 젊은 고객들이 붐비는 곳. 거리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즐거운 곳. 군산 우체통거리 주민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캐릭터 우체통 QR코드 체험]을 통해 선물을 받고, [느린엽서]를 써서 1년 뒤에 받으세요. [소원엽서]를 쓰고 우체통거리 소원우체통에 넣으시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드립니다. 우체통거리로 오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캐릭터 우체통 QR코드 체험

우체통거리 캐릭터 우체통에 QR코드를 찍는다.
 >우체통 캐릭터가 말해주는 미션을 수행한다.
 >상가에 들어가서 주민이 마련한 선물을 받는다.
 >선물은 상가 사장님이 준비한 꽃다발, 빙과류, 군만두...
 쏘, 여기까지. 궁금하면 체험해보세요!

[느린 엽서]와 [소원 엽서] 쓰기

>우체통거리에 비치되어 있는 엽서를 고른다.
 >편지를 쓴다.
 >느린우체통 또는 소원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다.
 *주민들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세요.^^

이벤트 더하기 이벤트

지금부터 9월까지 SNS(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에 리뷰를 올린다.
 >10월 1일 [제5회 소년지축제]에서 리뷰 올린 시민 중 60명 선정 선물 증정(5만원 상당)

도시재생뉴딜 예비사업 삼학시장

삼학시장 갤러리로 산책나온 소장품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삼학시장 목로주점 시장갤러리에는 박홍식, 문정자, 진향자, 최규선, 강유순님의 소장품이 집 밖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범성포시장에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받았다는 혁필 작품과 아버지가 쌀 몇 가마와도 바꾸지 않았다는 병풍, 돌아가신 바깥어른이 직접 썼다는 붓글씨와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초등학교 때 대회에 출품하여 상을 받은 큰아들의 서예작품,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집주인을 꼭 닮은 국화 그림, 30년은 족히 넘었다고 하는 조카가 대학생 때 그린 그림과 지인이 선물해 준 풍경화 한 점, 경성고무에 다니던 사촌누나가 사용했다는 고무신 테두리를 자르는 가위, 마지막으로 진향자어머님의 속 깊은 사연이 깃든 신발 한 켤레, 모두 다 소장자들의 소중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연 깊은 물건과 작품들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사판 장비들로 꽉 채워져 있던 창고가 건물주님의 배려로 잠시나마 갤러리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문화예술의 온기로라도 채워지는 삼학시장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전시제목 : 삼학시장 목로주점 시장갤러리

전시일정 : 2022. 6. 17(금)~18(토) 14:00부터 20:00까지

전시장소 : 삼학시장 입구 상가(군산시 삼학길 22)

주 최 : 삼학동지 주민공동체

협 력 : 미술공감 채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신발은 발 안아를 때
샀으니까 한 8년정도 됐는가
봐요, 구시장에서 샀어요,
그 때 만오천원인가 이만원
주고 샀어요, 못 신은 거예요,
아까워서...
이쁘고 그래서 샀는데...
발이 엄지가 나와서 못신어...
다리가 불편해져서 못신어...
(진향자, 74)

도시재생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제4회 어버이날 기념 도시락 나눔 행사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고덕자 팀원



지난 5월 4일 수요일 어버이날 기념 도시락 나눔 행사로 신영시장 상인회는 분주했다.

새벽 6시부터 소라를 데쳐내 초무침을 만들고, 살이 도톰한 간 고 등어는 화덕에 굽고, 잡채와 김치, 밥도둑 제육볶음을 만들며 상인회 사무실이 여느 백반집 식당으로 변신했다. 뜨끈한 흰쌀밥과 탐스러운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준비한 도시락은 100인분에 달했고, 80여 개 신영시장 상인들의 점포에 전달되었다.

“몇십 년째 상점을 운영하며 신영시장을 지켜온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이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다”며 유난스럽게 떠들어 대지도 않고 묵묵히 4년째 그렇게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송기섭 상인회장은 상인들에게 전했다.

“아 바쁘디~ 언제 이렇게 맛난 음식을 만들었대~” 3동 상회 어머니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해 설명하지 않아도 시장의 살아있는 인심과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도시재생 이런 생각이!**해신동 발전에 필요한 사고방식**

전남 완도에서 군산으로 올라와 사업을 한 지가 약 45년 됐습니다. 처음 영화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보선창주변에서 세 살았고, 현재는 해신동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동백대교를 공사한 지가 15년 16년 정도 되는데 당시 모퉁이 오르막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백대교가 생기면서 집이 날아가 버릴 처지에 놓였는데 그때 대책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최용범씨와 자주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지장물 조사 업체가 2~3개가 조사를 하여 평균단가를 정하고 보니까 현 시가에 비해서 괜찮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보상을 더 받으려고 시끄러웠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부터 시작을 안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게 생겨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물꼬를 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일 먼저 양보하고 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양보를 유도했습니다.

해신동은 동백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백대교로 서천과 군산이 연결되면서 해신동이 군산 관문이 되었습니다. 군산사람들이 군산 나들목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은 20~30%이고, 동백대교로 해서 서천 나들목으로 가는 사람이 70~8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신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자부심이 생기는데 올라가는 길목부터 지저분하고 내려올 때 보면 상가 옆으로 쓰레기가 많아서 군산 이미지가 굉장히 손실되고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가 군산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산이 새만금도 있고 섬으로 다리가 나서 육지가 되어 이제 앞으로 관광도시와 문화도시가 되고, 산업단지도 활발하게 형성되고, 이제 앞으로는 군산이 어떻게든지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이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문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외 사람들이 보면 '아 군산 깨끗해졌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러 사람 말이 많겠지만 어떻게든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 해신동이나 또 군산이나 더



백종섭 해신동주민자치위원장

나가 만인이 다 좋다는 쪽으로 해야지 몇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경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통영 갔더니 거기도 잘해 놓았더니 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자리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바꾸다 보니 내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뒤로 가더라도 단골손님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 기해요. 자기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면 구석구석 다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권이 다 산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제비뽑아 평생 그 자리에서 영업한다면 경쟁의식이 없어서 발전이 없어요.

22년 올해는 수산물종합센터가 이주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 센터는 주차장이 되고, 폐철도 유희부지도 예쁘게 꾸미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차도 운영된다면 해신동에 방문객이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하며 남은 기간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정리: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백종화 팀장〉





2022 중앙동 인심축제

불 꺼진 항구, 째보선창을 다시 켜다.

2022.06.24(금)

- 중앙동 주민 잔치
- 째보선창 투어 close
- 바다 공예 체험 close

2022.06.25(토)

- 째보선창 정각 도슨트 투어 open
- 어린이 미술대회 close
- 바다 공예 체험 open

* 이벤트 참여시 군산 선물 키트 증정

06.24
-06.25
2022

군산 비어포트 야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6-24



주관 : 군산시 도시재생과 주최 : (주)로컬프렌들리 지원 : 째보선창반영회,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알림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 공간을 무료로 나눠
사용하고자 하는 청년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10-3671-4887

- 발 행 일 2022년 5월 25일
- 발 행 인 송석기
- 발 행 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기획·편집 김기은 · 정예슬

